

Article-13, 2003 년에 씀.
(필자의 승인 없는 인용을 금함)

자판전문 위원회에 보낸 항의문

안마태

대한민국 자판 전문 위원회 위원님들께.

귀 위원회가 지난 8 월 21 일 민원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토의 내용에서 잘못된 점이 있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조석환 교수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먼저, 남이 쓴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 글 쓴 사람의 사전 승인을 받는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예의를 안 지켜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예의일 뿐 아니라, 인쇄된 글을 사전 승인 없이 인용하면 부분적인 인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악용되었을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 글이 실려있는 카이스트의 제 웹에는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나의 이메일 주소 (ahnmatae@kcservices.org)를 올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공병우 3 별식에 대한 나의 글 일부가 사전 통보도 없이 악의로 인용되었습니다.

나는 민원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세사모 회원들로부터 지난 3 년동안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카이스트의 제 웹 페이지에 공병우 세별식 사용자들과의 대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아 최근에야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로 인해 공병우 박사님의 서거 후 폐쇄되었던 한글 문화원의 문을 몇일전 다시 열었습니다.

둘째, 이북의 사회 과학원이 지적한 제 글판의 모음 입력의 어려움과, ‘을’자와 ‘를’자를 만들 때에 일어나는 한손가락 연타 발생을 말했는데, 이런 결함이 생긴 원인은 실험용 동시입력기를 만드느라 동시입력에 편리하도록 임시로 글쇠 자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함은 2001 년에 이미 수정하였습니다.

이북 학자들이 쓴 글의 끝 부분(결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첫째로, 세별식 건반의 타자 속도가 두별식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옳지 않으며 안마태 건반과 같이 건반 배열을 잘 하면 훌륭한 세별식 건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안마태 건반 배열에서 우에서 부족점으로 지적된 건반들을 수정한다면 우월한 조선글 입력 체계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석환 교수님의 잘못은 내가 1977 년도 부터 지난 26 년 동안 100 여회 이상의 글쇠 자리를 바꾸어서 실험한것 중의 한가지를 가지고, 그나마 이북의 학자들이 ‘안마태 건반배열에서...수정한다면’이라는 문구를 써서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마치 제 글판이 문제점이 많은것 처럼 (7 항 둘째 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음) 적어 놓아,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사비를 들여가며 급년에야 겨우 끝내어 조국에 바친 글판에 먹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 글을 올려놓은 이유가 남한의 학자들이 그 글을 읽고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북 학자들처럼 서로 도와서 제 글판을 실험해주어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을 함께 갈고 닦아주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이번처럼 악용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욱더 걱정되는것은 그 글을 주로 쓰신 분은 제일 교포 출신으로 16 살에 부모따라 이북으로 귀화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1999 년 중국 연변에서 DOS 로 개발한 나의 동시 입력기를 보고 하도 신기해 하기에 실험해 보라고 디스크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갖고가 다른 학자들과 함께 실험해보니 동시 입력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풀어치기 (순차 입력 방법으로)로 우리가 1969 년도에 연변 회의에서 만든 남북이 합작한 자판(통일자판)과 비교 실험을 했고, 무려 30% 이상의 성능이 좋다고 이북에서 표준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분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일부만 인용하여 남쪽 정부의 공식 기구인 표준 위원회에서 문제가 많다는 기록을 남겼으니 그분의 신변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무척 염려됩니다.

절대 군주제도인 그곳 체제에서는 조금만 혐집이 잡혀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2 별식 국규 자판을 제껴두고 나의 3 별식 글판이 옳다고 학자적인 양심 선언을 했는데, 개인 기록도 아닌 공식 회의에서 그런기록을 남기다니! 나는 80 년대와 90 년대에 미국의 40 여개 기독교 교단의 모임인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USA 의 한반도 통일 문제 Project 로 와싱턴에서 일한 (Campaign Director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경험이 있고, 여러번 방문하였기에 그곳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느라 조심조심 살얼음 위를 걸듯이 조바심을 가지고 한발자국씩 움직이는 이때에, 이런 경솔한 짓은 나 개인에게만 상처를 주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박찬경 삼성전기 부장님의 잘못입니다.

‘공병우 3 별식을 개선시킨 안마태 3 별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박씨를 Park 이라 표기하는데 여기서는 백이나 흑인 가운데 Park 이라는 성이 꽤 많습니다. 그럼 박선생님은 미국인 피를 가진, 그리고 이들의 성을 개선한 박씨입니까?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박선생님의 표현은 무식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공병우 3 별식과 안마태 3 별식 사이에는 3 별식이라는것 말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2 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의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 와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독재 군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데모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병우 박사라는 전직 안과 의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도 글자판 연구가임을 알게되었고, 그분이 그 유명한 한글 타자기 발명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1975 년도부터 우리 동포들의 이민자들을 돕는 한글 간행물을 헐리우드에서 발행하고 있었고, 1977 년도 부터는 한글 처리 때문에 상당한 컴퓨터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으며 나의 컴퓨터 자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1969 년도에 테레타이프용으로 갑자기 만든 한글 글자판을 1982 년도에 컴퓨터의 표준으로 공표하였기에 그자판이 오래도록 표준으로 남아 있을 것이 예상되어 나중에 새로운 자판으로의 전환때에 생길 자율신경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두별식 표준자판을 그대로 두고, 맨 아랫줄의 글쇠만 비워서 받침자를 놓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나의 글판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2 별식을 개선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공병우 3 별식을

개선했다는 말은 박선생이 내 글판을 들여다 보지도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무식꾼임을 입증했습니다.

1983년 봄에 동부에 출장갈 일이 생겨, 이 글판을 공병우 선생께 보여드렸는데 “안신부님은 반정부 데모를 이끄는 민주인사로 알았는데 이제보니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사람 편을드는 가짜 민주인사요” 하시면서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쓴 글의 여러곳에 적어 두었는데 박선생님은 남의 험집만 찾아내느라 혈안이되어 그런 글의 내용은 전연 보지도 못한것 같습니다. 다시 <http://ai.kaist.ac.kr/ahnmatae> 를 열어, 내가 쓴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의 혈압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70 이 가까운 노인이고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둘째로, 박선생의 무식을 또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박선생이 지적한 “(1)사용자의 불편 (2) Training (교육)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3) 이런 기능을 Cover 하는 키보드가 현재에는 없다” 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쓴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남의 연구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헛소리입니다.

- (1) 사용자의 불편 운운하는 내용- 타자행동은 인체의 자율신경을 훈련시켜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실험 할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실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실험을 전연 해보지도 않고 사용자의 불편 운운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나의 글판을 한번도 실험한 일이 없습니다. 80 년대에 미국에서 내가 많은 실험을 했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6 년과 97 년 중국 연변대학의 김숙자 교수가 내 글판의 사용자 불편을 측정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연구 결과를 일부 글을 통해 발표한 일은 있으나, 내가 쓴 글의 내용은 그분이 실험한 내용의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현재 평양에서 카이스트가 만든 동시입력기를 가지고 작년부터 이분야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생은 인체의 자율신경을 훈련도 안시키고, 실험도 안해본 상태에서 사용자의 불편 운운하는 것은 박선생이 초인적(超人的)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분, 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 (2) 훈련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내용 - 이 훈련 시간에 대한 속도 측정은 미국과 중국에서 많은 실험을 했고, 이의 결과를 나의 글 여러곳에 적어두었습니다. 평양에서 실시된 통일 자판과 안마태 글판의 훈련시간 비교측정은 8 명의 타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보고입니다. 분당 370 타에 이르는 시간이 안마태 건반이 92 시간, 통일 건반이 117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 가량 안마태 글판의 훈련 시간이 짧다는 말입니다. 이 통일 건반은 남한의 2 벌식 자판보다 20%정도 성능이 좋으므로 남한의 표준 2 벌식과는 약 50%의 차이가 납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측정한 남한의 2 벌식 표준 자판과 안마태 글판의 훈련시간 차이는 약 50% 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보고서의 첫 10 시간에 이르는 동안의 타자 습득(훈련) 속도는 미국과 중국에서 측정한 수치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아 아주 정확한 보고서로 봅니다. 이런 50% 수치의 차이는 풀어치기 입력에서의 차이이며, 동시 입력으로는 안마태 글판이 약 300%가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한글은 평균 2.5 자가 한 마디글(Syllabic Character)로 되어있으며, 카이스트에서는 문장부호들과 띄어 쓰기를 동시입력이 가능하도록 Trailing 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율신경 훈련은 글쇠를 하나 누르나 둘을 한꺼번에 누르나 훈련 시간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직접 가르쳐보면 압니다. 훈련 시간에 대한 측정도 안해보고 훈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내용은 삼성전기 회사를 욕먹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도 못읽는 분을 고용한 회사이고, 읽고도 수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 (3) 한정된 많은 키를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Cover 하는 키보드가 현재에는 없습니다라는 내용 - 셋빨간 거짓말 입니다. 2000 년 여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언어처리 대회에서 나의 동시입력기가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고, 많은 일본, 중국, 한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서 이 세나라에 가서 그동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카이스트의 김진형 교수의 요청에 의해 그곳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분이 DOS 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으므로 Window 에 내 글판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의 개발과 개량을 위해 그동안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2001 년 봄에 내 글판을 동시입력으로 사용하는 입력기는 완성 되었으나 글판 자체의 문제로 100% 동시입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아론전자회사에 가서 이를 사용할수있는 기계식 글판을 개발하여 100 대를 만들었고, 그 후에도 글판이 변경되어 글쇠(Key Cap)를 바꾸느라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이 글판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이북,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서 한글로 중국어 입력 방법을 연구하느라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서 값이 싼 멤브레인 키보드에 사용할 IC 를 개발하여 현재 시험용 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대량 양산을 해서 무료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본의 도시바 회사가 만든 노트북을 사서 나의 글판으로 직접 동시입력을 하며 잘 쓰고 있습니다. 지난 4 월에는 카이스트가 내 글판을 언론에 공개 한다가에 중국에서 나의 글판을 익혔던분을 모시고 가서 데모로 보여드렸고 제 웹에는 그분의 데모 장면이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런 북통 터지는 소리는 부디 그만 하십시오. 지난번 보고서를 읽어보니 TRAINING, COVER, N-KEY ROLLOVER 등 유식한 영어를 많이 쓰셨으므로, 나의 무식한 영어 단어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 몇자 적어두겠습니다.

‘SHUT UP! YOU STUPID’

그동안 민원인을 비롯한 여러 세사모(세벌식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들과 많은 대화(혹은 논쟁)가 있었는데, 나는 이 모임에 속한 젊은이들이 위의 두분들 보다는 훨씬 자판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한글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두분은 낡은 드보라이나 마르코프의 이론이나 늘어 놓고, 회의록에 영어로 도배질을 하고,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까뭇게는 무례한 사람들이고, 세사모의 사람들은 한글을 아끼며, 정정 당당하게 열린 공간에서 비판하며 좋은 제안을 하였고, 한글의 글판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설적인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공병우 선생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비록 나의 자판이 공병우 선생의 자판과는 정반대(그분것은 자음이 오른 쪽, 내것은 자음이 왼쪽에 놓여있음)로 되어있지만, 그분의 지론인 ‘(1)우리 민족은 한글 전용을 해야한다. (2) 한글 기계화는 반듯이 3 벌식이어야 한다 (3)글자판 배열은 이론만으로는 안되고 반듯이 실험을 해봐야한다.’는 말씀에 100%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써 놓은 글을 몰래 일부만 인용하고, 이북의 학자가 실험해보고 이의 시정안을 제시한것만 골라서 비교하며 “이와같이 자신들이 개발한 자판의 우수성을 저마다 내세우면서 좋다고들 합니다. (조교수의 7 제 항 첫머리) 라는 싸움을 붙이려는 잔피의 내용물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사람들 보다는 “안신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헛소리 한다” (세사모 사람들이 나에게 보낸 글들 중에서)는 젊은이들의 솔직한 표현이 훨씬 순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귀엽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벌 회사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으며 공들여 쌓아놓은 탑을 하루 아침에 발로 차서 뭉개는 깡패같은 사람들 보다는 훨씬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인 토론장을 열어놓아 누구든지 글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나의 웹 페이지에 있는 자유토론장) 거기서는 아무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가만히 뒤로와서 비수를 쫓는 비겁한 자객과 같은 사람들 보다는, 이론은 정연하지 않지만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앞으로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한글의 장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귀 장관 위원회가 나와 이북 학자들의 글만 일부 인용하여 3 별식이 2 별식 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끌고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 민족과 역사에 죄짓는 일입니다. 나의 글에서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2 별식이 3 별식보다 더 결함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북의 보고서에는 나의 3 별식이 2 별식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했습니다(보고서의 결론 첫째 항) 이런 글들을, 말을 교묘하게 뺄뺄 돌려서, 그것도 본인들의 의사(나와 사회 과학원의 학자들)는 묻지도 않고, 꺼꾸로 이야기 해놓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영 교수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는 아직 3 별식 자판과 2 별식 자판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 26 동안에 찾은 유일한 2 별식과 3 별식의 비교 연구 자료는 1992년 문화부가 한글과 컴퓨터사에 용역을 주어서 발표한 '한글 코드와 자판에 관한 기초 연구' 최종 연구 보고서에 박홍호님이 발표한 한글 자판에 대한 기초 연구(161 쪽 - 271 쪽)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한된 한글 말뭉치이지만 컴퓨터로 분석해본 결과, 결론에서 '컴퓨터 자판도 세별식이 두별식보다 우수하게 나왔다' (202 쪽)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람을 동원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은 못됩니다. 그 이유는 글자판이란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User Interfacing Device) 사람의 자율 신경이나 근육 운동을 컴퓨터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비교 연구를 해야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나의 글판과 표준 2 별식과를 직접 비교 연구한것은 82 - 85년 사이에 내가 실험한 것과, 96 - 97년 중국 연변에서 김숙자 교수가 실험한것 밖에는 없고, 2000년 이북의 사회과학원 응용언어 연구실이 나의 글판과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통일 자판과의 직접 실험 보고서 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작해야 남이 힘들여 여러사람들을 동원해서 실험한 귀중한 보고서를 남용한것 밖에는 없습니다.

자판 논쟁이 반세기를 끌고 왔는데도 아직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임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예입니다. 표준원이란 곳도 있고, 표준 연구원이라는 곳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런 곳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곳 같습니다. 자판 표준 전문 위원들이란 분들이 기껏해야 남이 연구한것 훑쳐다가 사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만드는 기술자들만 모인곳 같습니다. 아니면 군사정권 하에서는 총칼이 겁났다지만, 아직도 정부가 만든 영터리 2 별식이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연구된 데이터의 바탕위에서 만들어진 글자판'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으로 보아서는 군사정권이 이런 사람들에게 파브로브 리액션(Pavlov Reaction)이 평생가도록 잘 훈련시켜둔것 같습니다. 어디 그 정확하게 연구된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지난 26년간을 그 데이터를 찾아다녔으나 아직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니 듣던중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습 용이성과 숙달후 글자입력 효율성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 별식과 2 별식의 실측 실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자판 논쟁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 없는 논쟁으로 국력만 낭비됩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자판 전문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남이 쓴 글이나 훑쳐다가 그 내용을 꺼꾸로 써서 싸움이나 부치려는 얌은 수작들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는 귀 위원회의 8월 21일자 회의 내용을 읽고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 위원회가 남용한 글들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유를 언론에 밝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민원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올려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글들의 철수 뿐 아니라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 공개와 더불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다시 토의를해서 잘못에 대한 사과와 수정하는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문을 나에게 보내주고, 전번 회의 내용이 알려진 모든곳에 통보하십시오.

둘째, 위에 거론된 두분(조교수와 박과장)을 귀 재판 전문 위원회 명단에서 제명(除名) 처분하는 결의를 해주십시오.

2003년 10월 9일, 한글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리 벨리에서

안마태 올림